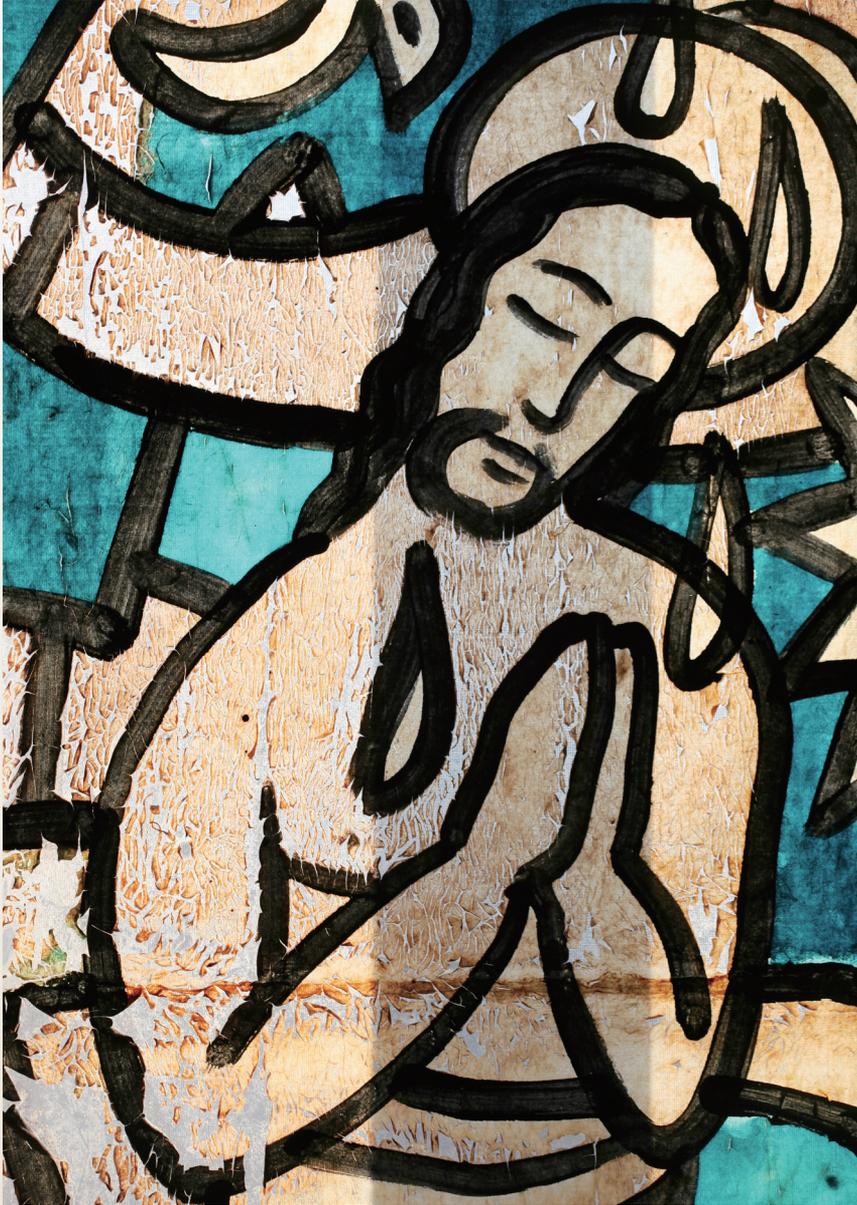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http://www.daegujobo.or.kr>



## † 오늘의 전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마태 3,13-17 참조)

예수님께서도 무죄하시면서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시고, 마치 당신이 용서받을 잘못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종형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닮겠다는 서약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런 우리를 귀엽게 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십니다.

지좌성당 스테인드글라스,  
주님 세례  
촬영 | 홍창익 비오 신부

**제1독서** 이사 42,1-4,6-7

**제2독서** 사도 10,34-38

**복음** 마태 3,13-17

**입당송**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렸네.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머무르시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화답송**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영성체송**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 처음으로

정삼덕 베네딕도 신부 | 복헌본당 주임

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이 축일을 맞이하다 보니 지금까지 저에게 세례 전에 찰고 받았던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제 연륜과 함께 찰고 노트도 늘어, 여러 권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찰고 당시의 노트 속에는 이름과 입교 동기, 질문 내용, 입교 후 변화된 자신의 모습, 세례 후에 어떤 신자로 살고 싶은지에 대한 각오, 그리고 합격 불합격 여부와 함께 몇 차례 합격됐는지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모든 분들의 찰고 내용을 다 밝힐 수 없고 특별히 기억나는 것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교 동기입니다.

“그동안 성당 공사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당 가자는 사람 없어 못 나오다가 지금에야 내발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때문에 그러다가 지금은 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작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49제 후 내 죽음도 잘 준비 해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행복했을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내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신혼여행으로 얼떨결에 바티칸에 가게 되었는데 이 여행으로 감동 받아서.”

“사업실패로 술을 많이 마시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애들한테 이런 아버지가 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친구들 미사보 쓴것 보고서 부러워서.”

두 번째, 세례 후 어떤 신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태껏 내 삶을 방해했던 사람들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open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전에는 남을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미사 시간에 장기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 쪽 유지하며 살겠습니다.”

“입교권유를 아내로부터 20년간 받았습니다. 핑계 같지만 그동안 사는데 너무 바빴습니다.”

“마치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남편, 부모 역할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후회합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살겠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통로에 살고 있는 대부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느님과 가장 가까운 신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지금 이분들 저와 헤어진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분들의 고백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게 찰고 받았거나 다른 신부님에게 찰고 받으신 분들 모두 처음 입교 하실 때 그 마음, 찰고 받으시면서 고백했던 그 마음 지금도 잊지 않으셨는지요? 조금이라도 잊으셨다면 우리 모두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필문**

## 하느님 백성의 모임

112년 비트니아 지방(오늘날의 터키)의 총독 플리니우스가 로마 황제 트라야누스에게 보낸 편지의 한 대목을 보면, “(체포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기를, 자신들의 죄는 정해진 날 동트기 전 마치 신에게 하듯 그리스도에게 찬송을 드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라고 써어 있습니다. 304년 “황제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왜 모였느냐?”는 재판관의 질문에 49명의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신자들이 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신자는 주님의 만찬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일 미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일에 제단을 중심으로 모이는 우리는 실제로 내적으로 깊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각자의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 세례일에 각자의 이마 위에 그분의 표지인 십자가를 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 백성의 한 사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날인 주일에 ‘당신을 기념하도록’ 당신 백성인 우리를 함께 부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모든 도시와 마을, 모든 지역에서 당신 자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은 당신 백성들을 제단에 모읍니다. 이미 사도들의 시대부터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초기 그리스도 신자들이 늘 “같은 장소에” 계속 모여서 형제적 일치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베푸시는 만찬을 거행했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매 주일 우리가 가지는 주일 집회에서도 부활하신 분과의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현존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주님은 성령이 봉독될 때 우리를 향해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찬례의 제대 위에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빵이 되십니다. 전례는 늘 미사의 이러한 보이지 않는 중심 사상과 신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표지를 통해서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사제가 미사 시작 때에 제의실에서 나와 마이크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첫 발걸음은 제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는 제대 앞에 이르러 깊은 절을 하고 제대에 존경을 표시합니다. 어느 날에는 향을 피워 들고 제대 주위를 분향합니다. 제대는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믿는 이들을 한데 모으는 경외스러운 장소입니다.

“주님의 만찬 없이는 그리스도인은 살 수 없다.”고 카르타고의 그리스도 신자들은 외교인인 재판장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일날 주님의 제단 주위로 모여 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주님의 식탁’이며 우리는 이곳에 모여 있는 주님 백성의 집회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필문**

이번 호부터 최창덕(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의 미사전례 해설이 월 1회 연재됩니다.

##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요한 13, 38)

고태권 그레고리오 신부 | 동천본당 보좌

아버지는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의 매일 같은 저녁 술자리에서의 꼬임(?)을 받고 미안한 마음에 의성 성당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세례를 받으니 저희 가족은 자연스럽게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골 성당에 다니는 저희 가족의 성당 생활은 사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일에 시간 남으면 가는 그런 여가 활동이었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성당 가족끼리 다리 밑에 가서 맛있는 고기도 구워먹고 물놀이도 가던 기억은 제 어린 시절 가장 즐거운 추억 중에 하나입니다. 성소주일에 의성성당 주임신부님이 “신부님 될 사람 손들어 보세요!”라는 신부님 강론 말씀에 아무 생각 없이 손들었다가, 신부님 도장이 찍힌 짜장면 쿠폰과 돈까스 쿠폰으로 음식을 먹을 때 신부님은 아버지, 어머니보다 위대하고 자상한 분이셨습니다.

시골 성당에서 도시 성당으로 이사 온 저희 가족은 적응 안 될 정도로 많은 주일학교 아이들과 그 누구도 반겨 주는 사람 없는 도시 사람들과 성당의 싸늘한 반응에 꽤나 긴 시간을 냉담하게 되었습니다. 냉담을 풀고 얼마 되지 않아 석양이 질 때 바라본 대구 신학교의 아름다운 모습에 낮이 나간 제가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여곡절(?) 끝에 사제가 되었습니다. 대구 북구에 동천동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사제 인사 발령 때 처음 알고, 이곳에서 2년이 조금 더 넘는 시간을 우리 신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직장 동료의 권유로 한 세례 약속이 아들이 사제가 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아버지께서는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어렸을 적 아무 생각 없이 신부님으로부터 얻어먹은 짜장면과 돈까스가 제 성소의 동기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통상 보좌 신부의 임기가 2년인데 제가 이곳에서 2년 6개월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아셨겠지요! 한해의 시작점인 1월, 너무 쉽게 예단하지 마시고, 점 보러 가지도 마세요! 대신 우리가 주님의 뒤를 잘 따라 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는 것이 2014년 한해를 시작하는 현명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



## 초심(初心)

어느 날 임금님이 시골마을을 지나다가 한 목동의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는데 그 목동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욕심이 없고 성실하고 평화로운 것이 평소 다른 신하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능력보다도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임금님은 그를 나라의 재상으로 등용을 했습니다. 재상이 된 목동은 성실하게 일을 잘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개 목동이 재상이 된 것도 불만스러운데다 모든 일을 공정하고 깨끗하게 처리하니 자신들의 처지가 곤란했던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재상이 된 목동을 쫓아내기 위해 모함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재상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기가 살던 시골집에 다녀오는 것이었습니다. 몰래 따라가 보니 광에 있는 커다란 향아리의 뚜껑을 열고 한참동안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임금님께 재상이 청렴한 척하면

서 아무도 몰래 향아리 속에다 금은보화를 채우고 있다고 일러바쳤습니다. 화가 난 임금님이 재상을 앞세우고 신하들과 함께 그의 집을 찾아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광속에 있는 향아리를 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향아리 속에 들어있었던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재상이 목동 시절에 입었던 낡은 옷 한 벌과 지팡이뿐이었습니다.

“저는 본래 목동이었습니다. 임금님의 은혜로 재상이 되었지만 제가 목동이었던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이따금씩 제가 입고 있던 옷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재상을 헐뜯는 자가 없었고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 때때로 시골집을 찾아 향아리를 열어보았던 목동. 늘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다짐하는 마음이 귀한 마음입니다. **필로**

### 금주의 성인

1월 12일	성 베네딕토 비스코프(수도원장 628~690년)	성 아르카디오 (순교자 302년경)	성 엘레드 (수도원장, 저술가 1110~1167년)	성녀 체사리아 (수녀 529년)	성녀 타시아나 (순교자 230년경)	
1월 13일	성녀 글라피라 (동정녀 324년)	성 베르노 (수도원장 927년)	성 힐라리오 (주교, 교부, 교회학자 320~368년경)			
1월 14일	성 다시오 (주교 552년)	성녀 마크리나 (개종자 270~340년)	성 펠릭스(신부, 증거자 260년경)			
1월 15일	성 마우로 (수도원장 580년경)	성 바오로 (은수자 230~342년경)	성녀 세쿰다나 (동정 순교자 250년)	성 마카리오 (수도원장, 은수자 300~390년)	성 보니토 (주교 710년)	성 아놀드 안센 (신부, 설립자 1837~1909)
1월 16일	성 마르첼로 (교황, 순교자 308년)	성녀 프리스킬라 (부인 98년경)	성 호노라토 (주교 350~429년)			
1월 17일	성녀 로셀리나 (동정녀 1263~1329년)	성 메룰로 (수도자 590년)	성녀 밀드지타 (공주, 수녀 676년)	성 술피치오 (주교, 647년)	성 안토니오 (수도원장, 수도자 251~356년)	성 제논포 (주교 250년)
1월 18일	성 볼루시아노 (주교, 증거자 496년)	성녀 프리스카 (동정 순교자 70년)	성 데이콜라 (수도원장 530~625년)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봉헌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1월 1일(수)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에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셨다.

■ 교구 사회복지회 신년교례회



2014년 교구 사회복지회 신년교례회 미사가 1월 4일(토) 오후 3시 교구청 내 교육원 대강당에서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 꾸르실료 신년교례회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1월 6일(월) 오후 7시 30분 꾸르실료 교육관 성당에서 꾸르실리스파 220여 명과 함께 신년교례회 미사를 봉헌하셨다.

 2014년도 대구주보 개편 안내

- |    |   |
|----|---|
| 1면 | 대구가톨릭사진가협회 지도신부님이신 홍창익(비오) 신부님과 회원들이 직접 촬영한 교구 내 본당, 성지 등의 사진으로 표지면을 장식합니다                |
| 3면 | 최창덕(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의 전례이야기가 매월 1회 연재되며 문화홍보실에서 마련한 문화산책, 가톨릭문인회의 신앙칼럼이 연재됩니다.             |
| 4면 | 기존의 사목단상과 복음의 눈으로 문화읽기는 그대로 진행되며 이달의 성인과 전례상식이 추가되어 월 1회 연재됩니다.                           |
| 5면 | 금주의 성인은 한 주간의 성인들을 소개하는 형태로 변경되고 기존 예화 코너와 더불어 역사 속의 그리스도인을 소개하는 이 사람을 아십니까?가 월 1회 연재됩니다. |

자녀 사랑이란 ...

박성규 엘리지오



# 미사안내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월 13일(월) 11:00 계산성당	성요셉 아버지학교 월례미사	1월 13일(월) 20:00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월 13일(월) 11:00 성건성당	바니성모님발현 81주년감사미사	1월 15일(수) 19:30 삼덕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월 13일(월) 11:00 신평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월 16일(목) 10:00 평화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월 13일(월) 11:00 월성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월 18일(토) 10:00 월성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월 13일(월) 11:00 죽도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1월 18일(토) 11:00 성모당
2대리구 성소후원회 미사	1월 13일(월) 11:30 범어성당		

## 성소 | 피정

**마리아 영성 피정(성체헌사미사 안수)**  
 일시: 1.15(수) 13:00~16:00  
 2.19(수) 13:00~16:00  
 지도: 강 요셉 신부  
 문의: 삼덕성당, 422~6691

**천생연분 피정**  
 오상철신부의 천생연분에서 인연을 찾으세요! 초혼, 재혼 수시 접수 중  
 네이버 카페명: 모곡피정의집 참조  
 문의: 피정담당자, (033)434-4204

## 교육 | 모집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2박 3일: 1.24(금) 17:30~26(일)  
 4박 5일: 1.20(월) 14:00~24(금)  
 8박 9일: 2.17(월) 14:00~25(화)  
 에니어그램: 1.25(토) 15:30~26(일)  
 문의: 예수마음배움터, (031)946-2337~8

**바오로딸 \_ 해설이 있는 영화포럼**  
 일시: 1.17(매월 셋째 금) 13:30  
 장소: 공평동 시내 바오로딸 서원  
 내용: 계명대 서장남교수의 해설과 함께 하는 영화포럼으로 선착순 20명(회비없음)  
 문의: 김에반젤리나수녀, (010)2658-5185

**골롬반 평신도 해외선교 관심자모임**  
 일시: 1.19(일) 14:00~17:00  
 장소: 부산 구봉성당  
 대상: 25~35세 남녀교우  
 문의: (010)5061-6722  
<http://www.columban.or.kr>

**행복한재활요양병원 환우 모임**  
 치매·중풍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가족과 같이 정성으로 보살펴 드립니다.  
 상담: 김요세피나, (010)3503-8427

**예수성심 조이플스테이**  
 모녀: 2.8(토)~9(일)

중고(여): 2.25(화)~26(수)  
 미혼(여): 매주(월) 19:00~21:00  
 문의: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010)2649-2045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모집**  
 과정: 신구약성경 입문(2년)  
 방법: 우편과 이러닝학습(동영상 강의)  
 원서: <http://uus.pauline.or.kr>  
 접수: 1.25(토)까지, [uus@pauline.or.kr](mailto:uus@pauline.or.kr)  
 문의: (02)944-0819~24/0840~2(이러닝)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대상: 만15~26세 남, 1년  
 내용: 기계가공, CAD/CAM, 자동화기계  
 특징: 교육비·기숙사비 무료 등  
 문의: 살레시오회, (02)828-3600

**제주도 관광 안내**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주관: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이시우 신경외과**  
<http://적주외과>  
 척추내시경, 현미경레이저, 디스크수술  
 (척추수술 5,000례 시술)  
 ☎ 652-0119 왕장 이시우(사도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대구 MBC TV 광고중  
 대구웨딩홀에서 웨딩을 소개하라!  
 웨딩사랑  
**대구웨딩홀 웨딩박람회**  
 2014. 1.18(토)~19(일)  
 AM 11:00~PM 7:00  
 주얼리타운 2층 전관  
(교동 동아백화점 본점 옆은편, 민원대 주차가능)  
[www.dgweddingmail.com](http://www.dgweddingmail.com)  
 문의 053-425-0216 최창열 바리솔 010-9687-0500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011-818-0818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 우체국 옆, 교대역 3번 출구  
 권중문(파비올라)

**해아림한의원**  
 소아클리닉 - 틱, ADHD, 아노  
 마음클리닉 - 공황, 불안, 불면  
 원장 김 대 역(안드레아)  
 예약 : 053)751-0071 2호선 수성구청역  
 4번출구 승원학원옆

**성요셉요양병원**  
 (구. 논공가톨릭병원)  
 매일미사, 상시고해·병자성사, 봉성제, 병실순회 기도  
 치매·중풍·노인성질환 전문 클리닉 운영  
 24시간 전문간병인·의사·간호사 상주 진료  
 친화경적 병실 운영, 양·한방 협진  
 병원장 장 효 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윤윤희 성명외과**  
 Dr. Yoon's Aesthetic Clinic  
 의학박사/전문의 윤 윤희(바오로)  
 서울백병원/영남의대 외래교수  
 영남대학교병원 사거리 앞  
**T. 053)655-8686 / 8680**

Volkswagen. Das Auto.  
**폭스바겐 대구전시장**  
 페이튼, 투아렉, 티구안, 파사트,  
 CC, 제타, 골프 등 시승 및 견적상담.  
 Dealer 이 상 혁(다니엘)  
**010-9358-8383**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대표전화 1577-2400  
 무료전화 080-053-1000  
 아육수(아네스) 010-5048-7739

## 행사 | 모임

### 1월 가나강좌

일시: 1.19(일) 9:30~17:30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의대 마리아관

참가비: 2만 원, 당일접수(무료주차)

문의: 641-5678 / (010)8853-7458

### 23회 성 이윤일 요한제

9일 기도미사: 1.12(일)~20(월)

매일 15:00 (단, 토 17:00)

순교기념미사: 1.21(화) 17:00

주제: 선교의 꿈

문의: 관덕정순교기념관, 254-0151

## 교육 | 모집

### 청소년 동아리 회원 모집

마감: 1.14(화) 17:00

대상: 중 1학년~고 2학년

분야: 문학 동인회, 사진영상 동아리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4~6

http://www.jesusclub.or.kr

### 2014 재속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

일시: 1.18(토) 14:00

장소: 월배성당 뒤 프란치스코눔

서류: 지원서

문의: (010)3440-0304

### 2014 본당사회복지학교(기본과정) 모집

토요일: 2.15~3.15 14:00~17:00(4회)

월요일: 2.17~3.10 14:00~17:00(4회)

대상: 전신자

참가비: 1만 원(교재비 포함)

문의: 카리타스복지교육센터, 255-7222

###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

#### 2014년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취득과정

접수기간: 1.2(목)~3.21(금)

교육기간: 4.1(화)~6.27(금)

교육장소: 교구청 교육원 가동 3층

교육비: 50만 원, 문의: 255-7222

### 2014 겨자씨성서 수강생 모집

구약반: 수 10:00, 20:00

신약반: 화 10:00, 월 20:00

연구과: 화 10:00, 수 20:00

어르신간질: 금 10:00

문의: 예수성심시녀회, 625-4627

### 오순절평화의마를 철야기도회

시간: 매주 화 23:00~익일 4:00

버스운행: 현대미래몰 앞 20:30

수성구청 21:00

문의: 차정숙레지나, (010)9510-6962

### 2014 맨발가르멜재속회 회원 모집

첫째 주 일요일 (011)530-7763

첫째 주 월요일 (011)9321-3497

넷째 주 일요일 (010)6263-0947

넷째 주 월요일 (010)4733-1715

### 프란치스코눔 수강생 모집

과목: 키보드, 가곡교실, 발성법, 심리상담

문의: 프란치스코눔, (070)4266-0047

### 장례지도사사무시험 국가자격증취득

국비지원 주말반, 주간반, 야간반

나이 / 학력 / 남녀 무관

선착순: 40명

본당 선종봉사자 취업희망자 환영

문의: 대가대평교원, 660-5556~7

## 채용 | 안내

### 월배성당 사무장 채용

서류: 이력서, 자기 소개서,

교적사본, 본당신부님 추천서

마감일: 1.16(목)까지

문의: 636-1302

### (주)매일상조 영업사원 채용

매일신문사에서 직접 운영하여

믿을 수 있는 매일상조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427-4400(면접 후 채용)

### 2014년 교구 신앙 다이어리 판매

판매처: 계산서원, 바오로딸서원,

삼덕성당 임마꼴라파성물방,

성바오로서원, 바티카노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6~9

큰 사랑, 큰 믿음!  
**대구안과** **이정환**  
DAEGU EYE CLINIC  
백내장, 노안, 근시교정 수술  
원장 이호성(아오스딩), 조영수(다미아노)  
대구시 남구 월배로 468(대명동)  
(구)달성군청자리  
☎ (053)651-2233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100년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가대 르네상스 시대' 를  
열어갑니다  
2014. 5. 15  
개교100주년  
기념식  
대구가톨릭대학교  
100 UNIVERSITY

**비염·축농증**  
코 질환 집중 치료  
대구수성점 **코비한의원**  
대표원장 이 판 제(루까)  
☎ 053-753-9795 수성구청역 4번 출구 앞

본도의 한방을 기름이  
내일을 만드는  
정직한 본도  
기적의 에너지가 됩니다!  
**(주)본도** **죽복을저하는사람들**  
본도의원/주요소  
전화 한통이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 053)623-4600, 656-2500  
대표 김 현 철 (베네딕도)

3대를 이어온 경옥고 명가  
**(주)약령시사람들**  
◎ 선물용 경옥고 제품  
◎ 경옥고(젤류, 환, 차, 팩, 샴푸 등)  
◎ 공진단 ◎ 홍삼제품  
양대성(안토니오) 010-3528-8008  
☎ 1644-8807, (053)428-8002  
www.약령시사람들.com (약령시장 내)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70-8827-6207 부산 051)817-3885~8  
서울 02)579-3889 02)3141-3888  
http://www.mjms.co.kr / 대표 김순자 (마리아)

Legend of Royal  
**Rex Diamond**  
대구갤러리  
예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대표 임 미 순(마리아)  
동아백화점 본점에서 시청방향 사이  
(맞은편 통일주차장 무료)  
☎(053)428-7989 | 010-4439-9991  
교구님들께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박의현 구십내과** 의원  
**서정희 피부과**  
Dermatologist Dr. Suh  
피부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